

미얀마 양곤 상담시절단

■ 추진배경

- 미얀마의 화장품시장은 시장개방과 TV 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, 특히 미얀마 여성들은 지난 10년간 계속된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여성의 하얀색 피부를 선망하며 한국 화장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음
- 미얀마의 화장품시장은 이미 많은 브랜드가 진출해 각축을 벌이고 있으나, 아직 태동기에 불과해 성장할 여지가 크며, 화장품뿐만 아니라 가방, 헤어핀 등 액세서리시장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관심 및 시장선점 필요성이 높음

- 미얀마 화장품 주요 생산업체는 1개사, 나머지 화장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
- 한류 인기 지속 및 소비수준 향상, 미용에 대한 관심 높음
 - 한국 화장품 수출 2년 사이 2배 증가(2014년 618만\$→2016년 1,192만\$)
 -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, 미얀마시장이 급격히 개방되면서 미얀마 화장품시장도 외국계 기업의 진출이 확대
 - 한국계 화장품으로는 Debon, Coreana, Etude, Face Shop, Missha, Nature Republic, Tony Moly, Mizon 등 이미 10여 개 이상의 브랜드가 진출
- 타 동남아 국가대비 규모가 작은 편이나 매년 3% 내외의 꾸준한 성장세

■ 사업개요

- 기간/지역: 2019. 5. 15.(수) ~ 5. 18.(토) 【2박 4일】, 미얀마 양곤
- 품목/규모: 뷰티제품 (화장품 등), 8개사
- 참가일정(안)

날짜	주요일정	비고
5/15.(수)	• 부산 (16:15) → 인천 (17:20) • 인천 (18:45) → 양곤 (22:20)	KE1408 KE471
5/16.(목)	• 산업시찰 / 상담준비	양곤
5/17.(금)	• 1:1 비즈니스 상담회 • 양곤 (23:15) → 인천 (07:35)+1	양곤 KE472
5/18.(토)	• 인천 (08:25) → 부산 (09:30)	KE1401

■ 기대효과

- 2002년 이후 현재까지 한류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미얀마는 이미 대중화 단계로 한국 화장품 수출이 2년사이 2배 증가하는 등 현지시장 진출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낮은 국민소득으로 인해 제품의 질도 중요하지만 가격을 우선해서 선택하므로 지역 뷰티기업들이 합리적 가격과 더불어 양질의 제품으로 경쟁한다면 시장우위를 선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

■ 지원사항

- 모집업체수 : 부산 8개사
- 참가업체 지원사항
 - 왕복 항공료 50% ▷ 업체당 1명
 - 현지마케팅비용 (상담주선 용역비 등), 통역 및 임차료, 현지이동비용 등
- 신청자격 : 전년도 수출총액 2,000만불 이하 부산소재 중소기업
 - *부산시 지정 향토기업 우대
 - *단, 전년도 수출실적 2,000만불 초과기업이 참가를 원할 경우, 자부담
- 제출서류

【필수】

- ① 사업자등록증(소재지·업력·업태·업종 확인)
- ② 공장등록증 또는 제조원가 명세서 1부(제조활동 여부확인)
- ③ 최근 3년 대차대조표·손익계산서(기업 수익성·성장성 확인)
 - ※ 국세청 홈택스(<http://www.hometax.go.kr>)에서 발급
- ④ 최근 3년 수출실적 증명서(수출경쟁력 확인)
-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종업원 수 확인)
 - ※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포털(<http://www.4insure.or.kr>)에서 발급

【보유시 제출】

- ⑥ 각종 인증, 지적재산권 증서·표창·사본(기업 및 제품 경쟁력 등 확인)
 - ※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증서는 전시회 개최기간까지 유효한 것만 인정
 - ※ 표창은 2016년 이후 수상한 경제 관련 표창만 인정
- ⑦ 최근 2년간 사전마케팅 활동자료(현지 수출실적·시장조사 보고서·에이전트 계약서 등)
- ⑧ 최근 1년간 FTA·해외마케팅·무역실무관련 교육 수료증 사본 (교육명·수료기간 확인)

■ 문의처: 부산상공회의소 통상진흥본부 (☎051-990-7083)